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4281호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산업]
추석연휴, 재계총수들은?
국내외 현장방문
재충전하며 경영 구상
06

[바이오]
셀트리온
'허쥬마' 加 시판허가
북미 시장진입 가속도
L2

언제 출발해야 안 막힐까?

T맵 "고향 가는 길, 12일 점심 드시고 출발하세요"

SKT, T맵 교통 빅데이터 분석

서울-부산 구간 13일 가장 혼잡
경부고속 11시~19시 가장 막혀

추석 연휴 기간 서울-부산 구간의 경우 상·하행선 모두 13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으로 떠나기 가장 좋은 날짜는 11일 오전이나 12일 오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지난 5년간 'T맵' 이용자들의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번 추석 연휴(11~15일) 주요 고속도로의 일·시간대별 소요시간을 예상한 결과, 고향으로 떠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11일 오전 11시 이전이나 12일 오후 4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부산 구간의 경우 13일이 역귀성 차량과 나들이객까지 몰리며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부산 구간 귀성길은 13일 오전 9시부터 교통량이 늘어나 오전 11시 최고조에 달해 11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이날 부산에서 오후1시에 서울로 출발할 경우 8시간 5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평소 동시간대 평균 소요 시간 대비 3시간 20분이 더 걸리는 것이다.

서울-광주 구간의 귀성길 정체는 11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지고, 11일 오후 4시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경길은 13일 오전 8시~오후 9시, 14일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교통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서 서울로 14일 오후 2시에 출발할 경우 소요시간은 7시간 10분으로 예측된다.

추석 당일인 13일 귀성길 주요 고속도로의 주요 정체구간과 시간을 예측한 결과, 경부고속도로는 오전11시에서 오후7시 사이 ▲한남IC-양재IC ▲죽전 휴게소-영동1터널 ▲칠곡물류IC-언양 휴게소 ▲양산IC-부산TG 등 200㎞에 걸쳐 평균속도 50㎞/h 미만의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동고속도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창JC-월곶JC ▲안산JC-부곡IC ▲신갈JC-강천터널 ▲원주IC-평창IC 등 80㎞에 걸쳐 정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추석 당일 귀경길의 경우 경부고속도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180㎞에 걸쳐 정체가 예상된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비슷한 시간대 120㎞에 걸쳐, 영동고속도로는 83㎞에 걸쳐 정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T맵 추가 전용 서버를 확보하는 한편, 사전 테스트와 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등에 만전을 기해 T맵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운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의 고속도로 출구 유도선을 각기 다른 컬러로 적용해 가시성을 높였다. 또 SK텔레콤은 이번 추석을 맞아 'T맵주차'를 통해 추석 연휴 무료로 개방되는 공공 주차장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고객들이 추석 연휴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T맵 운전습관'에 '실시간 확인 기능'을 적용시켰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추석 당일 주요 고속도로 정체 예상구간

9월 13일 귀성길(서울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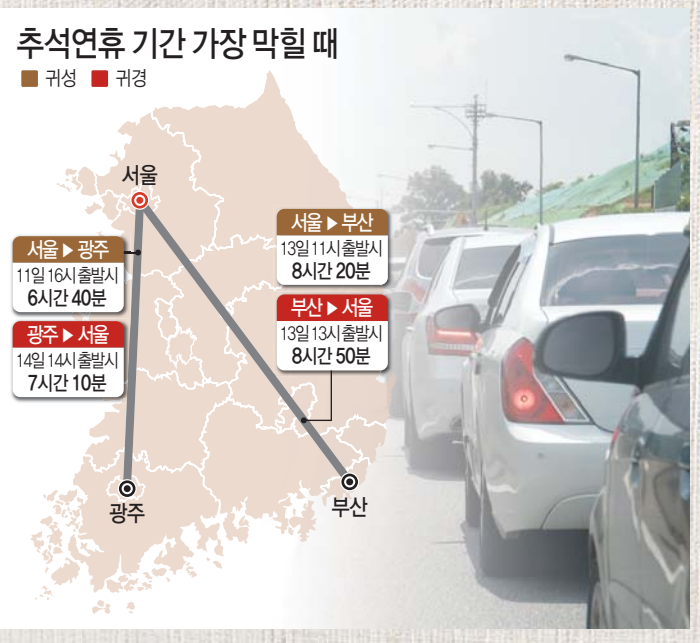
고속도로	정체구간	혼잡시간
경부	200㎞	11시~ 19시
서해안	72㎞	10시~ 18시
영동	80㎞	11시~18시
중부	73㎞	11시~19시
호남	19㎞	10시~16시
천안논산	24㎞	11시~19시

9월 13일 귀경길(서울행)

고속도로	정체구간	혼잡시간
경부	180㎞	11시~19시
서해안	120㎞	10시~20시
영동	83㎞	11시~19시
중부	68㎞	11시~20시
호남	50㎞	11시~18시
천안논산	50㎞	10시~19시

자료/SK텔레콤

추석연휴 기간 가장 막힐 때



"귀성 전 차량 무상점검 받으세요"

현대차 전국 서비스센터서 점검
르노삼성 차량 액세서리 프로모션

주말을 포함해 나흘밖에 주어지지 않은 짧은 추석연휴이지만 고향 가는 길은 즐겁기만 하다. 그러나 귀성 귀경객들에게 차량점검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필수요소다. 이에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귀성·귀경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현기차, 쌍용차 '추석 차량점검'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는 추석 연휴를 맞아 11일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석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 및 1373개 블루핸즈에서,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 및 806개 오토큐를 통해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기아차는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타이어 공기압 등 장거리 운행을 위한 필수사항 점검 서비스에 더해 워셔액 보충 서비스 등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도 추석 연휴를 대비해 11일까지 '추석 특별 차량점검 서비스'를 직영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한다.

쌍용차는 히터·에어컨 작동상태는 물론 각종 오일류 및 벌브류 점검을 비롯해 타이어 마모 상태 등 11개 항목으로 귀성·귀경길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일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르노삼성, 한국지엠 '프로모션'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지엠(GM)은 각종 프로모션을 포함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액세서리 지원 프로모션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우선 지난 8월 출시한 '3D HD 360도 스카이뷰 카메라'를 구매한 고객에게 손쉬운 설치 및 이동이 가능한 'QM6 카텐트'를 무상으로 증정한다.

한국지엠은 '쉐보레 해피추석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대상 차종은 쉐보레 스파크, 트랙스, 이쿼녹스, 임팔라 총 3300대다.

특히 선수금과 이자가 전혀 없는 '더블 제로' 무이자 할부를 최대 50개월로 운영한다. '더블 제로 무이자 콤보' 할부로 개월 수에 따라 스파크 최대 90만원, 트랙스 최대 130만원, 이쿼녹스 최대 220만원, 임팔라 최대 260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

추석 연휴 일부 금융사 온라인 거래 중단

카드결제 등 금융서비스 중단
출발 전 車보험 특약 확인해야

추석 연휴기간 중 일부 금융사의 온라인 카드 결제 등이 중단된다. 연휴에 앞서 금융사와 중단업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각종 자동차 보험 특약의 경우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같은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농협은행(카드업무)을 비롯해 KB국민카드와 교보생명, KDB생명, 대신증권 등 5개사는 정보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온라인 카드결제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오는 11일 업무마감 후 정보시스템을 중단하며, 전환 후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서비스를 재개한다.

온라인 카드결제와 입·출금, 체크카드, 홈페이지, ARS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나 증권사 시세조회(국내)는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금융사 업무 중단 계획〉

회사명	작업기간
농협은행(카드)	9월 11일(수) 21시 ~ 15일(일) 9시
KB국민카드	9월 12일(목) 0시 ~ 16일(월) 8시
교보생명	9월11일(수) 23시 ~ 16일(월) 9시
KDB생명	9월 12일(목) 9시 ~ 14일(토) 9시
대신증권	9월 13일(금) 0시 ~ 15일(일) 18시

/금융감독원

차량을 이용해 귀성길에 나선다면 일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을 비롯해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발생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에 신고 ▲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 ▲2차 추돌사고 주의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접수 등 처리 요령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조사 지연 시 치료비 등의 우선 지원이나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보장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이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